



김연경, 흥국생명으로 돌아온다 흥국생명이 김연경(34)의 복귀에 의해 팀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V-리그 흥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랐다. 흥국생명은 21일 김연경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수개월 동안 김연경에게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 계약을 이끌어냈다. /흥국생명 배구단 제공

## 광주여대, 전국양궁 대학 女단체 우승

‘대통령기 전국양궁대회’ 오예진, 개인전 준우승



광주여자대학교 양궁부는 광주 국제양궁경기장에서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된 ‘제40회 대통령기 전국남여양궁대회’에서 대학여자 단체전우승과 개인전 준우승(오예진)을 차지하며 여자 대학부 최강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여자대학교 양궁부는 3학년 에 재학 중인 안산 선수의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3관왕, 2022년 양궁 월드컵 단체전 금메달, 졸업생 최미선 선수의 2016년 리우메자네 이류 올림픽에서 단체전 금메달,

2022년 양궁 월드컵 단체전 금메달, 졸업생 기보배 선수의 2016년 리우메자네 이류 올림픽에서 개인전 동메달, 단체전 금메달을 따는 등 다수의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바 있다.

경기가 끝난 뒤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준우승을 이끈 오예진은 “선수들 모두가 함께 단합해서 좋은 결과를 거뒀고 기쁘고 이후에도 다른 국내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힘 없이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기 기자

# 황선우, 자유형 200m 은메달 쾌거

개인 첫 롱코스 메이저대회 입상 ‘역대 최고 성적’  
1분44초47 새 한국기록...평영 50m 최동열 9위



황선우가 21일(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22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200m 결승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올댓스포츠 제공

황선우(강원도청)가 해냈다. 만 19세 황선우가 한국 수영 역사를 다시 썼다.

황선우는 21일(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두나 아레나에서 열린 2022 국제수영연맹(FINA)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47로 터치패드를 찍었다.

1분43초21의 다비드 포포비치(루마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레이스를 마친 황선우는 자신의 생애 첫 세계선수권 메달을 은색으로 장식했다.

한국 경영 선수가 세계선수권 시상대에 오른 것은 2011년 상하이 대회 박태환의 자유형 400m 금메달 이후 11년 만이다.

자유형 200m로 범위를 좁히면 2007년 멜버른 대회 박태환의 동메달 이후 15년 만의 쾌거다. 한국 선수의 자유형 200m 세계선수권 역대 최고 성적도 황선우의 차지가 됐다.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서 자유형 100m(47초56)와 200m(1분44초62) 한국 기록을 모두 다시 쓰며 혜성처럼 등장한 황선우는 처음으로 롱코스 메이저대회 입상에 성공하며 세계적인 스타의 탄생을 알렸다.

황선우는 도쿄올림픽 당시 수립한 자유형 200m 한국기록을 1년도 채

안 돼 갱신하는 겹경사까지 누렸다. 황선우는 준결승 성적(3위)에 따라 3번 레인에서 레이스를 시작했다. 4번 레인에는 포포비치, 2번 레인에는 엘리야 워닝턴(호주)이 자리했다.

8명 중 가장 빠른 0.61초의 출발 반응 속도를 보이며 물속에 뛰어들

황선우는 초반 50m 구간을 24초36로 통과했다. 레이스가 절반이 지났을 때 기록은 50초72로 전체 4위였다. 반환점을 돌면서 황선우는 서서히 힘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100-150m 구간을 26초61로 통과하면서 메달권인 3위에 진입했다.

마지막 50m에서는 비축했던 에너지를 모두 쏟아냈다. 포포비치가 레이스를 주도한 가운데 황선우는 막판 스피드로 2위에 도착했다. 혼신의 힘을 다한 끝에 황선우는 도쿄올림픽 우승자인 톰 딘(영국)을 밀어내고 2위를 차지했다.

황선우는 이후 열린 시상식에서 두 손을 번쩍 들며 기쁨을 만끽했다. 팬이 내민 티셔츠에 사인을 하며 메달리스트가 됐음을 실감했다.

2004년생으로 황선우보다 한 살이 어린 포포비치는 압도적인 기량으로 금메달을 가져갔다. 1분43초21은 세계 주니어 신기록이다. 톰 딘은 3위로 입상했다.

남자 평영 50m에 나선 최동열(23·강원도청)은 27초34로 1초 5위가 올랐다. 전체 9위가 된 최동열은 한끗 차이로 8명이 겨루는 결승 진출이 무산됐다. 8위 필리페 프란카 실바(브라질 27초20)와 0.14초 차이였다.

마지막까지 역영을 펼쳤으나 작년 제16회 한라배에서 세운 27초09의 본인 최고 기록이자 한국 기록에는 조금 못 미쳤다.

여자 자유형 1500m 결승에서는 ‘살아있는 전설’ 케이티 레데키(미국)가 패권을 거머쥐었다. /뉴스스

## ‘판정 불만에 헬멧 내동댕이’ 하주석, 10G 출장정지

제재금 300만원 · 봉사활동 40시간 중징계

볼 판정 불만으로 거친 행동을 보인 하주석(28·한화 이글스)이 1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1일 “KBO리그 규정 벌칙내규 제1항과 제7항에 따라 하주석에 출장정지 10경기, 제재금 300만원,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 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주석은 지난 16일 대전 롯데 자이언츠전 8회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난 뒤 배트로 홈플레이트를 강하게 내리쳤다. 바깥쪽 낮은 코스로 형성된 초구가 스트라이크로 선언된 것에 대한 불만 표출이었다. 송수근 주심의 퇴장 선언에도 하주석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더그아웃 앞에서

헬멧을 집어던졌다. 벽을 맞고 빙겨져 나온 헬멧은 웨스 클레멘츠 수석코치의 뒤통수를 강타했다.

KBO는 20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하주석에 대해 심의하고, 징계를 결정했다.

벌칙내규 1항은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퇴장 당했을 때’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100만원 이하, 출장정지 5경기 이하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7항은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불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유소년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



하의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

KBO는 “경기장 내에서 과격한 행동 등으로 야구팬에게 실망감을 주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10개 구단에 철저한 선수단 교육 실시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뉴스스

## 프로축구 수원, 팬 폭행 사과 가해자 홈경기 2년 출입금지

프로축구 K리그1 수원 삼성이 최근 FC서울과의 슈퍼매치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수원은 21일 구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슈퍼매치 때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과 K리그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폭행도 용납, 옹호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폭행 가해자에 대해선 향후 2년간 홈경기 출입을 정지시킬 방침이며, 해당 소모임에 대해선 엄중 경고와 함께 올 시즌까지 홈경기 시 단체복 착용 및 배너 설치를 금지하도록 했다.

### 2022 행복해남!

# 해남형 ESG로 살기 좋은 해남을 만들어가요!

탄소 중립도시 완성  
**청정해남**

**환경 Environment**

기후변화 대응 | 친환경 | 탄소저감

안전망 구축  
**함께해남**

**사회 Social**

안전망 구축 | 경제활력 제고 | 교육·공동체 육성

공정한 윤리경영  
**청렴해남**

**지배구조 Governance**

청렴한 공직문화 | 혁신과 참여행정 | 건전재정